도, 남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본격 추진

광한루원 주변의 풍부한 전통문화시설 · 디지털 기술 융합한 문화콘텐츠 제공…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도시 구축 '총력'

전북도가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전북도는 9일 남원시청에서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남원시와 함께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원 광한루원 일원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능형 관광 요소 구현을 통해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이 참석해 이환주 남원시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교부 및 예산, 정산관리에 관한 전북도 지원사항, △기술자문, 사업관리 지원, 컨설팅 등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사항,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데이터와 콘텐츠 공유, 전담조직 구성 등 남원시의 준수사항에 대한 것이다.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특정관광구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유형 정보를 분석해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9일 남원시청에서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남원시와 함께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원 광한루원 일원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능형 관광 요소 구현을 통해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총사업비 95.6억원(국비 35, 도비 10, 시비 35, 민간 15.6)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원시는 광한루원 전통문화체험지를 대상지로 풍부한 전통 문화 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광한루원 일대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서비스와 '흥얼 버스킹'에서 소리와 몸짓을 통하여 함께 어울리는 흥의 문화를 체험하고, 저녁에는 요천 일대에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 주막'에서 옛 선비들의 멋스러운 풍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미디어월·파사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 청년창업 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남원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을 시군 관광지로 확산, 전북 미래관광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전북이 디지털 관광산업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광한루원 주변 시설 인프라 구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부족했던 체험관광 콘텐츠는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보완, 남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 관광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도, 구강보건주간 15일까지 운영… 도민 동참 유도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 인식 · 구강건강 실천 분위기 확산 기대

전북도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은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臼齒, 구치)의 '구(臼)'를 숫자 '9'로 바꾼 6월 9일을 지정?기념한 날이다.

올해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표어(슬로건)와 '초고령 사회, 구강질환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주제로 구강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를 구강보건 주간으로 정하고 도내 곳곳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전북도는 9일과 10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과 전북대학교병원, 초등학교 등에서 전주시보건소?부안군보건소?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과 합동으로 구강건강 홍보 행사를 실시한다.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에서도 어린이집?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올바른칫솔질), 임산부 구강관리 교육, 어르신 틀니 유지관리법 설명, 구강위생용품 전시 및 사용법 안내, 홍보물 배부 등 다채로운 지체행사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0년 외래 다빈도 질병(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수(1,632만명)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가장 많다.

구강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 지속되며 악화되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보이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등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습관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이 필수다.

도 관계자는 "보건소와 함께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어린이충치예방사업, 노인의치(틀니)사업,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등 시군별로 특성있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앞장'

재직자취업자전문가 과정 500명 모집…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비 전액 무료 ·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도는 3GW급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인력수급에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태양광 유지보수 인력양성을 위한 재직자, 취업자, 전문가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인력양성 교육은 재직자(1주), 취업자(4주), 전문가(8주) 총 3개 과정으로 재직자 과정은 상시교육, 취업자 과정은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문가 과정은 10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시설·안전·행정관리, 최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교육을 중심으로 취업·산업전환 희망자들을 위한 취업 컨설팅 교육, 육상·수상·해상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여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재직자, 경력자, 취업 희망자 및 예정자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각 과정당 20명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기업이나 학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관심있는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사전 문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참여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http://saemangum-job.or.kr)및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063-580-1522)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는 이번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국내 태양광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키우고 수요자 맞춤 인력지원 환경을 마련해 관련 산업의 고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도, 농번기 인력수급 현장 긴급 점검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 임실군 농촌인력 지원 현장 방문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9일 임실군 농촌인력 지원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농가를 방문하여 인력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오수관촌농협을 방문한 신원식 국장은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으로 인력지원 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가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9년도 최초 도입 이래 최대 규모(467명, 6월 8일 기준)로 운영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소규모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우수 사례로 손꼽혀 도내 타 시군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은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인력 수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도는 선제적으로 인력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 14일부터 도 및 14개 시군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농번기 각 지역(시군)의 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TP, 도내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소 시제품 · 시금형 지원… 내달 4일까지 접수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는 매출 100억 이하의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7월 4일까지 접수 받는다.

9일 전북TP에 따르면 도비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애로기술 등을 해소하고 매출신장을 위해 진행한다.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과 시금형 제작을 지원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지원은 공모형만 진행되며,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기간은 3개월 이며,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된다. 희망 기업은 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rnd.jbtp.or.kr/)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경수 기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내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양옥

대회제전위원장 손명엽

대회추진위원장 김연철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포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
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287-6676